

[사회]

■ 대학들 로스쿨 신청 전격 거부 선언 왜

유치 실패면 법대 유명무실

자칫 2류대학 전락·막대한 투자 물거품 우려

교육부가 로스쿨 시행 첫 해 정원을 1천500명으로 제한하자, 각 대학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조선대 등 전국 주요 대학 법과대학장으로 구성된 '로스쿨 비상대책위원회'는 18일 인가 신청 전면 거부를 선언했고, 대학총장들도 공동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대학들은 왜 정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걸까. 단적으로 말해 유치에 실패하면 법대의 존재 의미가 사라지고 우수학생 유치를 못해 지역에서 2류 대학으로 전락, 경쟁력을 잃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금껏 쏟은 막대한 돈 등 무·유형의 노력도 물거품이 된다.

정원이 1천500명으로 확정돼 한 학교당 100~150명의 정원을 배정할 경

우, 전국에서 10~15곳만이 로스쿨을 유치하게 된다. 현재 신청 의사를 밝힌 대학들은 47곳이기 때문에 절반 이상이 탈락하는 것이다.

광주·전남에서 유치 의사를 밝힌 곳은 전남대와 조선대 등 두 곳. 전남대는 지난 2004년 10월 '로스쿨 추진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를 발족한 후 16명의 교수를 새로 채용해 32명의 교수를 확보했다. 오는 2011년까지 교수진을 50명선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또 80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달 초부터 연면적 5천300㎡ 규모의 전용 건물(6천621㎡)의 개보수도 마친다는 계획이다. 로스쿨 특성화를 위해 공익인권법센터를 설립해 연간 5천

만원의 사업비로 인권교육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20억원의 장학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조선대도 지난 2004년 9월 실무추진기획단을 발족했다. 조선대는 교수 11명을 새로 채용, 25명을 확보했으며 현재 이달 말까지 4명을 더 뽑는다. 개원 시기인 2009년까지 32명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또 20억원을 들여 옛 학생회관 건물을 리모델링한 법학전문도서관을 완공했고, 우수 학생 확보를 위한 장학기금 300여원을 조성해놓은 상태다.

양 대학 관계자들은 "지역별 안배 방침에 따라 적어도 한 대학은 선정될 것으로 본다"며 "탈락할 경우 돈 건물(6천621㎡)의 개보수도 마친다는 계획이다. 로스쿨 특성화를 위해 공익인권법센터를 설립해 연간 5천



윤상원 열사 조형물 제막
5·18 민주항쟁 당시 전남도청을 최후까지 사수하다 산화한 고(故) 윤상원 열사(1950~1980년) 조형물이 18일 오전 모교인 전남대 사회과학대에 세워졌다. 이날 제막식에는 임채완 전남대 사회과학대학장·이홍길 5·18기념재단 이사장·김국웅 전남대 총동창회장·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차성수 청와대 시민사회수석 등과 윤 열사의 부모 등이 참석했다. 작가 최은태(전남대 미대 출)씨가 조각한 흉상은 시민군 대변인을 맡은 윤 열사가 양손을 맞잡고 고뇌하는 모습의 가로 70cm·세로 40cm·높이 200cm 크기다. /워킹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지역 대학 출신 사시 2차 23명 합격
18일 발표된 제49회 사법시험 2차 합격자 1천8명 중 광주지역 대학 출신은 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대가 19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조선대 3명, 호남대 1명 등이다. 전남대 출신 합격자는 전국에서 8번째로, 부산대(18명)·경북대(16명)를 제치고 지방대 중 가장 많은 합격자를 배출했다.

대학별 합격자 수는 ▲서울대 321명 ▲고려대 156명 ▲연세대 113명 ▲성균관대 74명 ▲이화여대 56명 ▲한양대 50명 ▲중앙대 24명 ▲전남대 순이다. /정성필기자 camus@kwangju.co.kr

택시 기사 윤기상 씨와 지갑.

광주 빛낸 '작은 지갑'

경기도 승마협회 부회장 김광국(63)씨는 지난 17일 오전 '뚝박의 선물'을 받았다.

택배회사에서 보내온 작은 상자 안에는 눈에 익은 지갑이 들어 있었다. 광주에서 열린 제 88회 전국체육대회에서 잃어버린 지갑이었다.

김씨가 지갑을 분실한 것은 지난 8일, 숙소 근처인 광천동버스터미널에서 택시를 타고 상무지구로 이동했는데, 그 과정에서 놓고 내린 듯싶었다. 신용카드 4장을 분실처리 하는 것이 번거롭긴 했지만, 선수들이 먼저 챙겨야 하기에 신분증 등이 든 지갑을 찾는 것은 아예 포기했다. 다행히 지갑 안에는 현금은 넣어두지 않았다.

하지만, 지갑은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라고 적힌 쪽지와 함께 10일 만에 김씨 앞에 '마술처럼' 나타났다.

김씨는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걸어 지갑 주인을 수소문 했다. 정작 지갑 주인인 김씨의 전화번호는 없었던 것이다. 택시에 놓고 내린 20여개의 휴대전화를 돌려 준 윤씨에서, 주인 찾아주시는 약속한 일이었다.

"제시간 동안 정 많고 음식 좋은 광주가 부러웠는데, 이런 감동까지 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씨의 목소리도 따뜻해져 있었다.

김씨는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돌려줬다. "감사합니다. 윤기상입니다." 전화를 받은 이는 광주에서 10년째 개인택시를 몰고 있는 윤기상(61·광산구 산월동)씨였다.

"옛그제 밤 차 청소를 하다가 의자 밑에서 찾았습니다. 얼마나 속상하게 하고 계실까 걱정돼서 실례를 무릅쓰고 뒤져봤더니 여러 사람의 명함이 나오더라고요." 윤씨는 수십장의 명함에 나온 데로 전화를 걸어서 주인을 수소문 했다.

정작 지갑 주인인 김씨의 전화번호는 없었던 것이다. 택시에 놓고 내린 20여개의 휴대전화를 돌려 준 윤씨에서, 주인 찾아주시는 약속한 일이었다.

"제시간 동안 정 많고 음식 좋은 광주가 부러웠는데, 이런 감동까지 줄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김씨의 목소리도 따뜻해져 있었다.

김씨는 쪽지에 적힌 전화번호를 돌려줬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올해 서울대 합격자 수능 성적 광주 출신 전국 최하위

광주 출신 2007년 서울대 합격자들의 수능 성적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정부위원회 김양수(한나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 출신 서울대 합격자의 수능 성적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했을 때 ▲인문계 66.67점 ▲자연계 65.73점으로 17개 시도(서울은 강남과 비강남으로 분리) 가운데 꼴찌였다. 인문계 학생들만 치르는 논술도 22.9점으로 최하위에 머물러 '실력 광주'라는 말을 무색케 했다.

반면 전남은 인문계의 경우 66.87점으로 전체의 6위, 자연계는 66.86점으로 2위를 차지했다.

인문계는 총점이 67.17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냈고, 다음으로 울산(67.14점)·제주(67.14점)·충남(66.94점)·대구(66.89점) 등이 뒤를 따랐다. 자연계 최고는 제주로 66.87점을 기록했으며 ▲전남·충남(66.75점) ▲서울 비강남(66.59점) ▲대구(66.37점) 등 순이었다.

한편 학구열이 높기로 유명한 서울의 강남지역 출신 서울대 합격자의 수능 점수는 인문계 66.79점·자연계 66.27점인 것으로 집계해 각각 13위·9위에 그쳤다. /정성필기자 camus@

따뜻하게 입으세요
흐리고 낮 한때 비가 오겠다.

10월 19일
(음 9월 9일)
◇전국날씨

광주	흐리고 비	11~17℃
주요	흐리고 비	11~16℃
여안	흐린 후속	15~18℃
안도	흐린 후속	11~18℃
구례	흐리고 비	10~17℃
해남	흐린 후속	9~18℃
장흥	흐린 후속	9~18℃
곡성	흐린 후속	8~18℃
영광	흐리고 비	9~17℃
진안	흐리고 비	10~16℃
전주	흐리고 비	11~17℃
남원	흐리고 비	10~16℃
홍성	흐리고 비	8~16℃
축성	흐리고 비	14~16℃

서울: 앞바다=남서~북서 파고 1.0~2.5m
남해: 앞바다=남서~북서 파고 1.0~2.0m
남해: 앞바다=남서~북서 파고 1.0~2.5m
목포: 밀물 < 06:38 썰물 < 11:40
여수: 밀물 < 00:40 썰물 < 06:47

▲해돋이 06:41 ▲해질 17:53 ▲달돋이 13:44 ▲달짐 23:36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짜	20(토)	21(일)	22(월)	23(화)	24(수)	25(목)
날씨						
최저/최고	5/14	8/19	9/20	9/20	10/21	10/20

오늘 비온 후 기온 '뚝'

광주·전남에 19일 비가 내리면서 3~4도가량 낮은 14~18도로 예상돼 한낮에도 쌀쌀할 전망이다.

기상청은 또 "내륙산간지방을 중심으로 우박이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18일 전북 장수의 기온이 3도 이하로 떨어지면서 올해 들어 첫서리가 내렸다. 이는 작년보다 6일 빠른 것이다. /김여울기자 wool@

공무원 범죄에 관대한 광주지법

실형선고 일반범의 5분의 1

광주지방법원의 직무관련 공무원 범죄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과 매년 급증하고 있는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한 영장 발부율이 전국 법원보다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선정률(대통령 임명)인사청) 의원은 광주지법이 제출한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6월 말 현재 광주지법의 공무원 범죄 실형 비율은 3%로, 일반 범죄 실형 비율(14.9%)에 비해 5분의 1 수준이었다. 이는 올해 전국 지방법원 공무원 범죄 평균 실형 비율 18.2%에도 턱없이 못 미치는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간 광주지법의 공무원 범죄 실형 비율은 ▲2003년 20.5% ▲2004년 4.5% ▲2005년 0% ▲2006년 2.5%로 매년 낮아지고 있는 추세다.

또 2004년 이후 광주지법의 14세~19세 미성년자 성범죄 사건 처리 건수는 ▲2004년 43건 ▲2005년 52건 ▲2006년 58건에서 올해 상반기 59건으로 폭증했다.

반면 영장 발부율은 ▲2004년 93.8% ▲2005년 100% ▲2006년 81.1%에서 올해는 71.4%(전국 평균 83.1%)로 점차 낮아지고 있다.

선 의원은 "공공기관의 가장 확립을 위해서는 공무원 범죄에 대한 처벌의 기준과 판결을 엄격히 해야 하고 성범죄는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불임예방 조기검사를 희망하는 부부 1,000쌍

□ 세부지원내역 - 1가구당 지원액: 검사비 지원한도액 30만원
- 지원기간: 2007. 10. 1. ~ 2008. 9. 30.
- 한방에 의한 불임검사 및 진단은 제외
- 불임예방조기검사비 지원은 사후 지원(선 검사, 후 지급)을 원칙으로 함
- 불임진단을 받고 치료중인 부부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불임진단을 받기 전 산부인과, 비뇨기과에서 실시하는 모든 검사비를 의미함

□ 신청대상자 - 법적 결혼기간이 1년 이상이며 재부가 없는 자 (접수 마감일 현재)
- 부인의 연령이 만44세 이하인 재접수 마감일 현재)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제출서류

순	구비서류	주의사항
1	불임예방 조기검사비 지원신청서 1부	
2	호적등본 1부	
3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제출
4	2007년 8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원본대조용) 중 택 1부	• 맞벌이 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서류 첨부 • 휴직의 경우 휴직명세서 첨부
5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맞벌이 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본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 제출

□ 신청방법 - 신청접수기간: 2007년 10월 1일 ~ 2007년 11월 10일
- 접수처: (우 150-808)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6가 121-146
인구보건복지협회 저출산대책사업본부 불임대책사업팀
☎ 02-2634-7970 fax 02-2639-2899
- 접수방법: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에 후기 우편접수에 한함(11월 10일 당일 도착분까지 인정)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인공수정 시술을 희망하는 불임부부 1,000쌍

□ 세부지원내역 - 선정된 후 12개월 이내 시술받은 인공수정 시술비(인공수정, 과배란인공수정) 지원
(2007. 10. 1. ~ 2008. 9. 30.)
- 1가구당 인공수정 지원횟수는 3회, 1회당 지원한도액 70만원
- 인공수정 시술비 지원은 시술후 지원(선 치료, 후 정산지급)을 원칙으로 함.

□ 신청대상자 -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로서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진단서 제출자 (산부인과 전문의, 비뇨기과 전문의 진단서)
- 접수 마감일 현재 부인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인 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

□ 제출서류

순	구비서류	주의사항
1	인공수정 의료비 지원신청서 1부	
2	진료의사진단서 또는 소견서 1부	• 원본 제출 •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
3	주민등록등본 1부	• 부부의 주소지가 다를 경우 각각의 주민등록등본 및 호적등본 제출 • 국제결혼의 경우: 호적등본 추가 제출
4	2007년 8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납부 확인서, 월급명세서(원본대조용) 중 택 1부	• 맞벌이 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서류 첨부 • 휴직의 경우 휴직명세서 첨부
5	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맞벌이 부부 또는 부부가 각각 가입되어 있을 경우 각각의 사본 첨부

* 기초생활수급자는 증명서류 제출

□ 선정결과 최종발표 - 발표일시: 2007년 12월 7일
- 발표방법: 아기모 홈페이지(www.agimo.org)에 공지

□ 신청서 배부처 - 아기모 홈페이지(www.agimo.org)에서 다운
- 인구보건복지협회 본부 및 지회에서 배부

□ 문의처 - 인구보건복지협회 불임대책사업팀 02-2634-7970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주관하는 불임부부 지원사업은 FKI 전국경제인연합회 20개 회원사의 이웃사랑성금으로 사랑의 열매가 지원합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20개 회원사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불임부부 지원사업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인구보건복지협회장 최 선 정